



Newsletter

안녕하세요? 김영선 선교사입니다.

건강하시죠? 주안에서 항상 평안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3은 GMSS 여학생 두 명과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너무도 복된 시간을 보내고 1월28일 탄자니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3월11일 이네요.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지난 수요일에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그 한 명처럼 되자고 설교했는데, 정말 매일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일에 파묻힐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럼 기쁨을 잃어버리더군요. 언젠가 주님이 “그만 해라”하실 날이 있을 텐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한국방문 (2023 Study Trip to Korea). 2021년 학교를 오픈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언젠가 누군가는 한국에 유학을 가지 않겠냐고 비전도 나눴지요. 이곳 아이들은 장학금 없이는 유학이 불가능한데, 탄자니아주재 한국대사관이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평가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장학생으로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좀더 격려하고 싶어서 2023년쯤 한국어학습과 문화체험을 위한 한국방문도 꿈꾸고 있다고 했죠.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듣고 2022년도에 비행기표를 플로잉 하겠다는 고마운 두 분이 나타나셨죠. 바로 김숙자 장로님과 신유진 집사님. 성령님이 쓰신 두 분에게 “내 잔이 넘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

메리스텔라와 에리카 - 학업30%-한국어30%-성경수업30%를 고려해서 뽑힌 예쁜 두 여학생들입니다. 인천에 도착하는 날, 겨울 옷들과 예쁜 털모자와 털장갑을 가지고 공항에 나와 큰 환영을 해주신 영종중앙 청년교회 최태진목사님과 청년리더들에게 감사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홈스테이를 통해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영종중앙교회, 하늘샘교회, 제주국제순복음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는 곳곳마다 한국의 멋진 곳들을 보여주시고 맛있는 것을 사주신 목사님들과 동역자님들을 축복합니다. 2주동안 월-금요일까지 한국어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설연휴에는 저의 가족들과 어울리며 명절 음식도 만들어 보고 세배해서 세뱃돈도 받았답니다. 필요한 것을 살 용돈이 생겨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죠☺

“한국에 가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이것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미래의 소망도 잃었던 메리스텔라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꿈을 꾸다는 것 자체를 포기했던 에리카는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아이들에게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국방문을 시작하기 3일전부터 저의 집에 와서 묵으면서 매일 저널을 쓰기 시작했는데, 탄자니아로 귀국하던 날 - 앞으로 꿈을 향한 실행 계획을 쓰는 것으로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했답니다. 요즘 자신들의 꿈을 향해 더욱 시간을 잘 쓰며, 기도하며 열공 하는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게다가 1학년들 한국어 기초도 가르치면서 말이죠☺

2024년에도 학생들 2-3명을 한국에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비행기표를 선물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해주세요. 카톡 아이디는 Tanzania.GMSS.1470; 이메일 주소는 yskim1023@gmail.com입니다.

글로벌미션중학교 업데이트. 한국에 갔다 오니, 42명의 1학년 신입생들이 방글방글 웃으며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2학년 29명 (2명이 전학 음), 3학년 38명(3명은 전학을 감) -총109명의 학생들이 8명의

Newsletter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열공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경, 태권도, 한국어 가르칠 단기선교 봉사자를 기도하며 열심히 찾았는데, 주님은 아무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아 주님이 올해는 내가 많이 가르치길 원하시는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성경은 제가 1 -2 -3학년을 다 가르치고, 수요일채플과 주일예배 설교는 제가 한 달에 2번씩하고, 그 외는 외부 설교자를 초대하거나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한국어 수업은 한국을 방문했던 두 여학생들이 기초를 가르치고, 저는 2-3학년을 합반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항상 즐겁죠. 그래도 늙어가는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어와 태권도 가르칠 봉사자를 다음 학기에는 꼭 보내주시길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늘샘교회 단기선교팀. 코로나이후 첫 미션팀이 의정부에서 다음세대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는 하늘샘대한감리교회에서 왔습니다.(2/1-2/11) 전용제 목사님과 미션팀(13명)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오셨는지 한 주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임재 안에서 믿음이 쑥 자랐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성가대가 처음으로 4부 합창을 배워 발표하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 첫 수업에서 아이들의 표정은 '이거 하기 싫어요'가 역력했는데 말이죠☺ 비행기표를 비롯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멋진 GMSS 축구팀 유니폼과 수업에 필요한 4대의 프로젝트까지 선물 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미션팀이 떠나는 날, 많은 아이들이 울었죠. 물론 떠나는 팀멤버들도 울고 갔죠. 2024년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건축 진행중. 시카고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GMSS 캠퍼스 안에 짓는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작년 연말까지 끝냈고, 한국방문이후에는 기둥 공사를 해오고 있는데, 곧 그것도 마무리되어 2주후에는 벽 쌓기와 지붕 공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강단 쪽을 다르게 디자인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 중입니다. 기도 타워를 세울 때도 이런 마음 주셔서 기도하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교회 강단 중앙도 유리 벽으로 해 볼까? 타일로 해 볼까? 벽화를 그릴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다목적으로 학생들외에도 교단과 지역사회에서 사용하게 될 것인데, 누구라도 교회 건물에 들어서면 순간 "아름답다"라는 감탄이 나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무슬림지역의 Nifuate 미션센터. 2021년 참배와 무슬림마을 리더들이 저의 미션센터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의 땅 일부에서 축구를 하게 해달라는 것. 저는 이런 요청을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 궁리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앞서 일하시며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안된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매일 오후 4-7시까지 청소년, 청년들 3팀이 와서 축구를 한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울퉁불퉁했던 땅도 이제는 축구 하기에 안성맞춤이 되었네요☺

또 한가지는 유치원을 지어서 운영해 달라는 것. 감사하게도, 드림스드림 NGO에서 20,000,000원을 보내 주셨는데 땅의 소유권 문제가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도 선임을 해서 일을 잘 추진해봐야 하는 상황. 바라기는 GMSS에 교회 건축이 끝나면, 니푸아테 미션센터에 유치원 공사가 시작되었으면 하는데, 이 또한 함께 기도해주세요.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무슬림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은 유치원 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Newsletter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 건축을 위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나요?” 저도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주셨지요. 이 학교를 함께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영적 감동이나 거룩한 부담에 그대로 순종하셨던 한 분, 한 분 어찌 잊겠어요? 매일 감사하며 매일 중보 기도합니다. 모든 건축이 끝나면 학교 어딘가에 모두의 이름을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동문들이나 학생들이 명단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물질을 순종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GMSS Family Day 행사가 있었는데, 기도타워에 올라가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다 보니 캠퍼스에 행복이 가득하더군요. 학교 건축을 시작하기 전, 지금의 캠퍼스는 아주 울창한 숲이었고 건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저는 문제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동역자님들께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 했었죠. 올해는 모든 건축이 끝나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살아계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동일한 신앙고백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탄자니아에서 말씀따라 성령따라~~~ 김영선(크리스티나) 선교사드림.

※선교후원 방법:

(한국) 신한은행 100-030-160224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국연합감리교단 세계선교부 한국사무실에서 연말정산시즌때 세금공제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선교후원금 입금 후에는 메일로 (yskim1023@gmail.com) 또는 카톡으로 (Tanzania.GMSS.1470)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국) 체크 메모란에 Advance#3022281(사역비후원) 또는 Advance#3021957 (생활비후원) 선택해서 쓰시고, 선교국 재정담당부서로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Advance GCFA at P.O.Box 9068. New York, NY 10087-9068. Thanks a million!!!

※이메일: yskim1023@gmail.com

카톡ID: Tanzania.GMSS.1470 (새아이디). 전화번호/Whatsapp: +255657438955

FacebookID: Young Seon Kim (가장 최근 소식을 알 수 있는 곳은 페이스북입니다).